

동양그룹,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

동서발전과 공동개발 MOU 체결 ... 신·재생 에너지 및 폐열 발전소 건설

동양그룹이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에 나선다.

동양그룹은 한국동서발전과 에너지 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 및 전력 생산·판매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시멘트 채광이 끝난 광산 등 동양시멘트가 가진 유휴부지에 약 2000억원을 들여 35만 M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및 폐열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으며 2011년 상반기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경 착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으로 동양그룹의 에너지 사업 경험과 동서발전의 발전소 건설·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다양한 사업에서 협력키로 했다.

동양시멘트 전상일 대표는 “2004년 삼척공장에 13만MWh 폐열 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다져왔다”며 “동서발전과의 파트너십으로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그룹은 최근 해외유전개발전문기업 골든오일을 합병하고 3억2000만톤의 석회석을 친환경적으로 캘 수 있는 광산을 준공하는 등 환경과 에너지를 성장축으로 삼는 에코너지(Econergy)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2>